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1호

李 회장 “정부는 체육단체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말라” 경고

체육 분야 국감 이기흥 '3연임' 쟁점...정몽규 불참

정주희 연합뉴스 기자

대한체육회 노조, 국감 앞두고 이 회장에 선거 불출마 요청

고구마 줄기 의혹에 노조도 '이기흥 아웃'...국감 앞두고 '전운'

김경수 시사저널 기자

#용인시체육회장 #막말파문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욕설·폭언'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3개월

김재성 Btvnews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여자 프로농구, 27일 부천체육관서 개막...혼전양상 전망

오창원 중부일보 기자

김운덕 의원, “공인 병원 상주 의사 채용 등 방안 마련” 촉구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장애인체육 요람 '이천선수촌'

이슬기 에이블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제7차 집행위원회

2024. 10. 16(수), 20:00 비대면 ZOOM

순서

■ 보고 안건

- I. 경기도체조협회 비리 사건 경과
- II. 재베트남골프협회 불공정 사건 경과
- III. 김포fc 무혐의 관련 성명서 발표 등

■ 논의 안건

- I. 최저학력제 관련 대응방안
- II.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 III. 김포fc 추후 대응방향 등

※ 별첨

- I. 재정 사항
- II. 회원 현황

체육 분야 국감 이기흥 '3연임' 쟁점... 정몽규 불참

[앵커]

국회 체육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을 놓고 문체부와 체육회의 날 선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 회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체육 분야 국정감사는 문체부와 체육회가 날을 세우고 있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는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사용과 입찰 비리 의혹, 체육단체장들의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 회장의 3선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인촌 / 문체부 장관(SBS 라디오)>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 회장이 특별보좌역과 자문위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임명하고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이 회장 측근으로 채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후보자로 나간다 그러면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절차를. 기회는 열려 있어요. 이걸 못하게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거취 압박이 큰 정몽규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증인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겨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도 국감장으로 소환돼, 협회의 독단적 운영 논란과 횡령·배임 의혹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고구마 즐기 의혹에 노조도 '이기흥 아웃' ... 국감 앞두고 '전운'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체육회 비리 의혹, 비위 정황 등이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체육회 내부에서조차 이 회장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3선 연임 행보를 이어가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오는 22일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에서는 이 회장이 선거 정관을 수시로 바꾼 정황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에 대한 의혹, 최근 불거진 체육계 비리·비위 사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선 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체육회가 2022년 정관을 돌연 변경한 것인데, 선거인단 총 2300명 안에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 228명이 선거인단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명시했다. 문체위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유권자 선거인단 10% 비중을 맘대로 쫓을 수 있게 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정황까지 터졌다. 이 회장은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센터)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월 이 회장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의 회장 선거를 허위 사실에 근거해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체육계는 이 회장이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 "IOC가 체육회 문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어"

문체부와 국회, 대한체육회 내부로부터 압박을 계속받고 있지만 이 회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체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회장은 제105회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경상남도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체부를 질타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는 문체부의 권고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력 거부했다.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거론하며 문체부의 행태를 압박하는 발언도 했다. 이 회장은 "IOC가 최근의 (우리) 체육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OC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문의를 했다"면서 "IOC가 의구심을 갖고 문체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이 회장의 최근 행보로 볼 때 3선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 회장은 무조건 3선에 도전한다"며 "이 회장은 오직 선거인단이 될 체육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표 쟁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출마를 희망하는 체육회장 후보가 많은데, 단일화가 아닌 이상 이 회장의 3선 저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시체육회가 욕설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심의에 앞서
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성]

#용인시체육회장 #막말파문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SK브로드밴드 #Btv뉴스

여자 프로농구, 27일 부천체육관서 개막... 혼전양상 전망

여자프로농구 2024~2025시즌은 혼전양상이 될 전망이다.
시즌 개막에 앞서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발표한 각종 조사자료를 살펴 보면 절대강자가 없는 시즌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아산 우리은행과 청주 KB의 2파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여자프로농구에 판도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우승팀 예측투표에서 용인 삼성생명이 103표 중 가장 많은 25표를 받았지만 46명이 실시한 미디어투표에서는 부산 BNK가 20표로 최다득표를 차지했다. 하지만 516명이 참여한 팬 투표에서는 우리은행이 159표로 1위에 올랐다. 다만 BNK는 선수와 팬투표에서, 우리은행은 미디어투표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감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삼성생명과 BNK가 가장 많았다.

박정은 BNK 감독과 김도완 부천 하나은행 감독, 구나단 인천 신한은행 감독은 삼성생명으로 전망했고, 삼성생명의 하상윤 감독은 BNK가 우승 후보라고 답했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은 삼성생명과 BNK를 모두 꼽았다

플레이오프 진출팀 전망에서는 순서는 달랐지만 선수와 미디어, 팬 투표 공통으로 BNK,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이 지목됐다. 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예상에서는 선수(35.9%)와 미디어(41.3%), 팬(32.3%) 투표 모두 김단비(우리은행)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로 명명된 이번시즌은 부천체육관에서 27일 오후 2시30분 하나은행과 KB의 개막전으로 시작한다.

정규리그는 내년 2월 22일까지며, 3월 4강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이 이어진다. 올스타 페스티벌은 12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은 한국 여자농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시아 쿼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일본 선수에게 문호가 개방돼 모든 구단이 일본선수를 보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WKBL은 경기 규정 또한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국제농구연맹(FIBA) 판정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인천 지역을 연고로한 팀들의 출사표는 다음과 같다.

▶ 하상윤 용인 삼성생명 감독 = 우리 팀을 두고 주변에서 온순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엔 '깡다구'를 많이 주입했다.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난다면 리바운드와 수비도 잘될 거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단 제가 잘해야 할 것 같고, 선수들을 믿고 있다.

▶ 김도완 부천 하나은행 감독 = 진안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운동이나 생활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고, 그 속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팀이 되겠다.

▶ 구나단 인천 신한은행 감독 = 박신자컵에서 경기력이 최악이었다. 이후 선수들에게 독기를 심어주려고 호되게 했다. 독기 '업그레이드'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 경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겠다.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으나 아직 안 맞는 부분도 많은데, 기본에 충실하겠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장애인체육 요람 '이천선수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들었다”고 칭찬한 장애인체육 요람 이천선수촌이 정작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운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천에 있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공개하며,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었다.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 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더 많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10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가 많고,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의료인력으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이 필요하며, 병원과 진단장비와 X-ray, CT 등의 진단 장비와 물리치료기 등 치료장비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명 동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고 운을 뗀 뒤 “장관이 이천선수촌이 외국에서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라면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단체생활하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군다나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런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럽고 참담해야 할 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진종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비난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1530>

與김승수 "부정·비리·사적 농단으로 얼룩진 체육계 환골탈태해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2118305090645>

경기도체육회,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2연패 달성 결의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70691?ref=naver>

옥수동 옥정교육문화관, 성동구립체육시설로 탈바꿈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1079600004?input=1195m>

여주 찾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외국인들과 자전거 동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203>

계명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다 메달 성과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128>

'화합·축제의 장'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소통의 경쟁

https://www.news1.com/view/NISX20241020_0002926577

울산 울주군,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내달부터 본격 운영

https://www.news1.com/view/NISX20241019_0002926408

박선미 의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촉구

<https://www.eneu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607>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